

### IgA 신증을 동반한 알코올성 간염 1 예

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학교실

김성준\*, 신원창, 최원충, 이진호, 박원도, 김관엽

알코올성 간 질환에서 혈중 IgA가 특히 증가하는 것은 알려져 있으며,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에게서 발생한 IgA 신증이 197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래 알코올성 간 질환에 의한 속발성 IgA 신증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일반 대조군의 IgA 신증의 발생률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. 국내에서는 동물실험 연구보고는 있었으나 두 질환이 동반된 예의 보고는 없다. 이에 저자들은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IgA 신증이 동반된 알코올성 간염 1예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 (중례) 약 10년간 폭음을 해온 28세 남자가 내원 3개월 전부터 미열, 체중감소를 보이다 1주일 전부터 황달, 복부팽만, 전신무기력이 발생하여 입원하였다. 신체검사서에서 만성 병색과 황달, 복부팽만을 보였고 일반 혈액검사서에서 혈색소 10.1 g/dL, 백혈구 5,250/mm<sup>3</sup>, 혈소판 69,000/mm<sup>3</sup>, 프로트롬빈 시간 INR 1.05이었다. 생화학 검사서에서 총단백/알부민 4.3/1.7 g/dL, AST/ALT 280/115 IU/L, 빌리루빈(T/D) 5.3/3.7 mg/dL, GGT/ALP 125/881 U/L, BUN/Cr 9.2/0.5 mg/dL, LDH 1591 U/L이었다. A형, B형, C형 간염표지자와 자가항체는 음성 이었고 소변검사서에서 단백 2+, RBC 10-29/HPF, 24시간 소변의 단백정량은 12,179 mg이었다. 복수의 단백질은 1000 mg/dL, 혈청단백 전기영동은 알부민과 α-2 글로불린의 감소, γ 글로불린의 다크론성(polyclonal) 증가를 보였다.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 비대와 지방변성(fatty change), 신장과 비장 비대, 소량의 흉수와 복수를 보였고 간 조직검사서에서 지방변성을 동반한 급성 알코올성 간염으로, 신 조직 면역형광검사서에서 맥관막내에 침착되는 IgA를 확인하여 IgA 신증으로 진단하였다. 이후 스테로이드, 이뇨제, 항생제, ACE 억제제, 알부민공급 등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중 사망하였다.

### 알코올성 고젖산증(alcoholic lactic acidosis)에 대한 임상적 관찰

아산재단 강릉병원 소화기 내과

고혁, 박성오, 김수희, 맹주희, 김연서, 김승용, 유철희

민성 알코올리증 환자들은 금주 후 알코올성 케토산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수액요법과 전해질 균형유지가 중요하다 고 되어 있다. 그러나 알코올리증 환자들이 지속적인 음주 후 고젖산증을 보이는 경우 thiamine 결핍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thiamine 보충을 시도하였으나 사망률이 59%-83%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1996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본원 응급실을 내원한 알코올리증 환자 중 다른 원인 없이 고젖산증을 보인 13명의 임상에서 thiamine 보충을 하여 이보다 좋은 치료결과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.

1. 전체환자 13명이 남자였고 평균 음주량은 소주 2홑 3.1병/일 이었고 고젖산증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다.
2. 기저질환으로 4명은 알코올성 간경화였고 11명은 알코올성 간질환이었으며 그 이외에는 없었다.
3. 응급실 내원당시 검사소견(평균값)

pH 7.0 ± 0.1 HCO<sub>3</sub><sup>-</sup> 5.5 ± 2.4 mmEq/L Lactic acid 155.5 ± 86.9 mg/L AST/ALT ratio 5

4. 고젖산증에 의한 대사성 산증 교정에 사용한 thiamine 과 NaHCO<sub>3</sub>의 용량(평균값)

thiamine(50mg/ample) 1.8 ± 0.4 amples

NaHCO<sub>3</sub>(20 mmEq/L) 10 ± 6 amples

산증 교정에 걸린 시간 5.1 ± 2.0 hours

5. 치료성적

13명중 11명은 젖산의 감소와 산증 교정 후 외래 추적 관찰중이며 나머지 2명은 내원당시 pH 7.0 미만이었었고 각각 심정지와 입원 후 발생한 정맥류 출혈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였다.

이상의 결과로 지속적인 음주 후 발생하는 고젖산증은 thiamine 결핍과 연관이 있고 신속한 산증교정과 50mg-100mg/일의 thiamine 보충을 통해 좋은 예후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.